

1번

제시문 (가),(나),(다)는 창조와 파괴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제시문 (가)는 고정되어 있는 세계의 자기 스스로의 창조와 파괴에 대해, 제시문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진화하는 체제의 창조와 파괴에 대해 이야기한다. 반면 제시문 (다)는 여러 사회적 체제 중에서 하나의 체제가 창조와 파괴를 이끈다고 보았다.

먼저 제시문 (가)는 고정되어 있는 세계의 창조와 파괴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제시문 (나)와 다르다. 단지 형태만 변화할 뿐,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의 실체는 고정되어 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며 자신의 체계속에서만 창조와 파괴 사이를 맴돌 뿐이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서 창조와 파괴를 주도하는 실체는 진화하고 발전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부수고 만드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설 새 없이 내부로 부터의 혁명을 통한 진화가 이루어진다.

한편 제시문 (다)에서의 창조와 파괴는 반드시 진화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제시문들과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다)에서의 부르주아 계급은 봉건 사회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근대 사회를 도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진화의 과정이 아니었으며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물질적인 것에만 의존하게 하려는 부르주아의 창조와 파괴 행위는 사회를 쇠퇴하게 만들었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 창조와 파괴의 주체인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이룩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 질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와 다르다.

3번

제시문 (나)와 (다)는 각각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계급을 내세워 창조와 파괴에 따른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먼저 제시문 (나)는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주체로 보았다. 노동자의 수입, 농업의 생산체계, 산업의 생산체계 등 대부분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이 관점으로 제시문 (라)의 <그림3>을 보면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한 시간당 생산량과 실질 임금의 상승을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생산량과 임금의 상승은 질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그림1>에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실질 가계소득이 증가했음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 (나)는 <그림2>의 계층별 실질 소득 증가율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그림3>의 생산량과 실질 임금 또한 그러하다. 이 문제는 제시문 (다)와 연결짓는다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부르주아 계급을 비판하고 있다. 부르주아 계급은 재산 증식에 큰 목적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지위 상승을 부정한다. 이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그림2>의 소득 계층의 현저한 불평등 현상은 쉽게 이해 가능하다. 부르주아 계급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를 동시에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계급 사이에 갈등과 폭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그림3>의 시간당 생산량에 따른 실질 임금간의 괴리는 자본주의의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착취를 보여준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드러나는 노동에 불평등한 대가는 제시문 (다)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성장과 관련이 깊다.